



# 카카오그룹 시총 73.9조... 국내 5위로 '깡충'

### 증권사 목표주가 잇달아 상향... 카뱅·카페이 IPO 기대감 상승

카카오그룹이 상장사 시총액(시총) 기준 국내 5대 그룹에 올라섰다. 모회사 카카오의 주가도 액면 분할 이후 과속지세로 상승하고 있다. 하반기에 자회사들의 기업 공개(IPO)도 앞두고 있어 시총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거래소)에 따르면 18일 기준 카카오그룹의 시총은 73조9344억원으로 집계됐다. 7위를 기록했던 지난해 말(37조8524억원)과 비교해 반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다. 2019년 말(13조2388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과 증가액은 각각 458%, 60조6956억원에 달한다.

카카오그룹의 시총 규모는 삼성그룹(751조1009억원), SK그룹(200조9109억원), LG그룹(158조1144억원), 현대차그룹(152조2861억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년 반 사이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아모레퍼시픽그룹, CJ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 전통강호뿐만 아니라 성장주로 꼽히던 네이버그룹, 셀트리온그룹 등도 앞질렀다.

계열사도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탈에 따르면 카카오그룹 소속 기업은 현재 118곳으로 2015년 말(45곳)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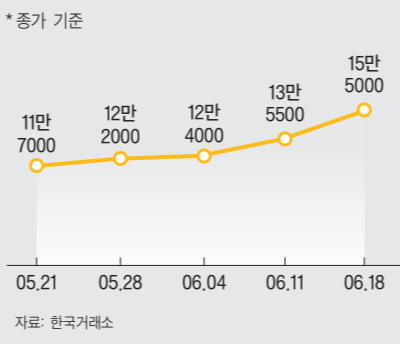
비교해 5년간 73곳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은 263곳에서 330곳으로 67곳 증가하는데 그쳤다. 빅테크 경쟁사인 네이버그룹 역시 2017년부터 현재까지 42~45곳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의 단기실적 성장과 더불어 가치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빠른 생태계 확장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생태계 확장과 각 비즈니스 별 시장 규모와 예상되는 카카오의 시장경쟁력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실적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가치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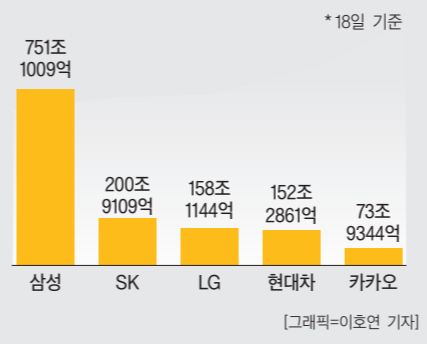
카카오 시총만 67.9조... 라이벌 NAVER 따돌리며 3위 등극  
카카오 주가는 크게 급등하고 있다. 거



#### 카카오 주가 추이 (단위: 원)



#### 5대 그룹 시총액 (단위: 원)



레소에 따르면 18일 기준 카카오의 주가는 15만5000원으로 지난 4월 15일 액면분할 이후 28.6% 올랐다. 21일 장 초반에는 15만9500만원을 기록하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총 규모는 67조9210억원으로 NAVER(64조9660억원)보다 약 3조원 가량 앞섰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네이버를 제치고 국내 시총액 3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이는 카카오의 사업 구조가 미래형, 성장형 사업에 집중돼 있고 이들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한 후 수익화에 나서는 전략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며 "국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서 주요 비즈니스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의 기업 가

치 상승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15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나금융투자는 19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앞서 이베스트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현대차증권 등도 각각 18만5000원, 17만원, 16만원으로 설정한 상태다.

오 연구원은 "카카오의 주요 비즈니스들은 지금도 이용자 규모와 매출이 고성장하고 있어 이에 기반해 평가하는 각사의 기업 가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이 예상된다"며 "영업 이익 역시 신사업의 흑자 전환과 기존 핵심 사업부의 성장으로 높은 성장 추세가 유지되고 있

는 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낙관하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주가 급등으로 시총 3위로 올라섰지만 이는 예정됐던 일이다. 미국의 경우 시총 5대 기업 중 4개 기업이 소프트웨어(SW) 플랫폼 기업이고 중국도 시총 1, 2위 기업이 텐센트와 알리바바다"라며 "산업 구조 변화에 의한 시총액 연전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시총 순위 상승도 생각보다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회사의 상장도 카카오에겐 희소식이다. 카카오뱅크는 코스피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하고 이달 IPO를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도 이달 안에 코스피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연구원은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향후 카카오의 주가흐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 이후 두드러진 실적 개선이 부각될 전망이다"고 기업공개(IPO)를 포함한 자회사들의 가치상승도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 “달러화 강세 지속 어려워... 코스피 상승추세 강화 전망”

### “반도체·자동차, 코스피 상승탄력 힘 실어줄 것”

#### 대신증권 보고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강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증권업계의 전망이 나왔다. 달러화가 안정을 찾을 경우 코스피의 상승추세는 강화될 것이며 주목해야할 업종으로 반도체와 자동차를 지목했다.

21일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향후 글로벌 증시, 코스피의 향배에 있어 중요한 건 달러의 변화다”라며 “달러 강세압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위험자산 강세를 장담하기 어려워 지수가 정체되기

나 변동성을 수반한 등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말 코스피는 정체,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기준 코스피는 3267.93로 장을 마감했다. 11일과 비교하면 0.6% 올랐으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16일(3278.68)보다는 한 발짝 물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닥은 991.13에서 1015.88로 2.5% 대폭 상승하며 ‘천스닥 시대’를 다시 열었다.

이 연구원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긴 어렵다고 예상했다. 달러 반등세는 직전 달러 인덱스(주요 6개 통화 대한 달러 가치 반

영 지수) 고점인 93p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1분기 달러 강세를 자극했던 유럽의 경기변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중순 이후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정체국면(6.6%)으로 진입한 데 반해 영국은 가파른 경제전망 상향 조정(6월 18일 기준 6.4%)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로존 GDP 성장률 전망 또한 4월말 4.05%에서 4.3%로 오르는 중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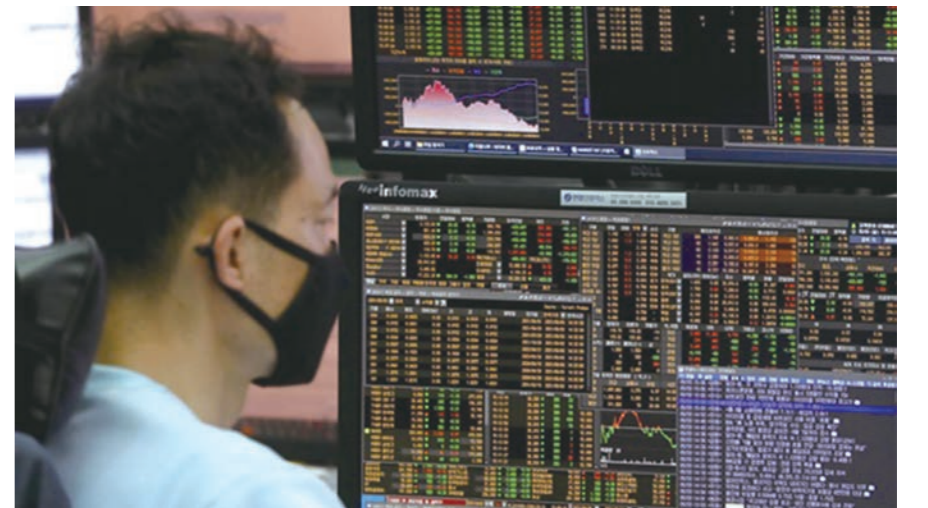
멀지않은 시점에 달러화가 안정을 찾아간다면 금리 하향안정세와 더불어 글로벌 증시, 코스피의 상승추세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닥과 중소형주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다음 상승추세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코스피 상승을 이끌 업종에

대해 고민하고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FOMC 전후로 그동안 부진했던 성장주의 강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코스피에서도 이달 초부터 2차 전지와 인터넷 업종이 상대적 강세로 돌아서며 코스피 사상최고치 행진을 주도하고 있다”며 “채권금리 하향안정세가 뚜렷해지며 할인을 부담에 억눌려있던 대표적인 고밸류에이션 성장주가 돌아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러화가 안정을 찾고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분위기 반전이 코스피 상승탄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자동차는 지난달 초 반등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이달 들어 다소 주



21일 대신증권은 보고서에서 “달러 강세압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위험자산 강세를 장담하기 어려워 지수가 정체되거나 변동성을 수반한 등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황정아 기자

춤하고 반도체는 상대적 강세를 모색하다 이달 들어 다시 약세로 반전했다”며 “이는 달러 강세, 외국인 매도압력 확대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공급차질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자동차, 반도체 영업

이의 전망도 다시금 주안 변화를 기준 3주 연속 상황조정 중으로 업황, 실적 개선 기대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주가 부진은 비등확대의 기회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 대한민국 으랏차차

# 칙

캠코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도전하는 기업에겐 **기회 도착!**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겐 **희망 안착!**

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가치 정착!**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힘 모아 돕겠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